

# 순록 뿔 밀수업소 적발

— 검찰, 한약재 유통 관련 대대적 단속 —

주재승/한의학신문 취재부장

전통한약재 집산지로서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서울 제기동 경동약령시가 가짜 한약재 유통과 무자격자들의 한약재 취급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명성에 먹칠을 하고 있다.

더욱이 이 같은 사건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한약재 중금속 함유 실태를 조사, 발표하면서 한의약계가 긴 불황에 시달리다 이제 갓 정상을 되찾아 가는 시점에서 또다시 발생했다는 점에서 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 □ 순록 뿔 밀수업소 적발

서울지검 특수부 수사팀은 최근 경동약령시 일대 녹용취급업소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벌여 수입금지 품목인 「순록」의 뿔을 밀수한 혐의가 있는 몇몇 한약재 무역업체 대표를 입건했다.

이들 중에는 국내의 굵직굵직한 한방병원과 녹용을 비롯한 주요한약재를 거래하고 있는 업체도 포함돼 있어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이들 업소로부터 밀수품인 순록 뿔을 구입해 이미 사용한 한방의료기관 등이 있다면 사실 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밀수된 부정 의약품을 환자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순록 뿔 밀수에 관련한 사람들의 명단이나 지금까지 밀수된 순록 뿔의 물량이 어느 정도이며 어떤 경로를 거쳐 어느 곳으로 유통됐는지 등은 구체적으로 알수는 없으나 순록 뿔의 유통은 그동안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물량과 사용업소가 결코 적은 수준은 아닐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순록은 암·수 모두에서 뿔이 돌아나는 동물이지만 우리나라 관련학계는 사슴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한때 국내에 반입되기도 했던 순록 뿔은 한약규격집의 녹용에 대한 정의가 순록을 사슴과 같은 과에서 제외하는 시점부터 수입이 금지됐다.

그러나 미국 알래스카나 러시아 일부 지역, 캐나다 등지에서 자생하는 순록 뿔을 싼값에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은 녹용 무역업자들에게는 매력이 아닐수 없다.

이번 순록 뿔 밀수 사건은 검찰의 조사가 끝나봐야 전말을 알수 있겠지만 시세 차익에 대한 미련을 떨치지 못한 일부 업자들의 밀수로 자칫 한의약계 전체가 불신의 늪으로 빠져들 지도 모를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검찰은 이번 조사를 통해 선 통관, 후 검사에서 불합격된 녹용을 폐기처분 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시킨 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매일 2~3명의 업자가 불려가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 □ 한약재 부정조제 단속

서울지검 북부지청 특수부는 최근 경동시장 일대의 한약재 제분소 등에 대한 단속을 벌여 한약재를 비치하고 환자들에게 처방을 조제해 준 혐의로 20여 곳의 업소를 적발했다.

일부 업소에서는 의료기관에나 있을 처방전

# 가짜 녹용·농약 한약재 대량 유통

· 약효가 전혀 없는 알래스카산 순록의 뿔을 수입해 녹용으로 속여 팔고, 살충제 농약 성분이 든 중국산 수입 한약재를 시중에 대량 유통시킨 한약재 수입상 등 17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3부(김우경·金佑卿 부장검사)는 26일 조흥약품 대표 김동량(金東亮·39)씨와 진형무역 대표 임석준(任錫準·39)씨 등 6명을 사기 및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또 우성양행 대표 신문균(申文均·53)씨 등 8명은 불구속 기소했으며 동아상사 대표 박기엽(朴基葉·28)씨 등 3명은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99년 6월부터 러시아 보따리장수 등으로부터 순록 뿔을 확보한 뒤 이를 녹용인 것처럼 포장해 180kg(1억8000만원 상당)을 전국의 한의원 등에 판 혐의다.

검찰은 『김씨가 판매한 순록 뿔의 규모는 2t가량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임씨는 살충제 농약인 BHC가 들어 있는 중국산 행인(杏仁·살구씨 알맹이)5t 등 1억원어치의 한약재를 불법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 기소된 신씨는 약효가 떨어져 부적합 판정을 받은 녹용 1.7t(6억5000만원 상당)을 한의원 등에 불법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수배된 박씨는 BHC가 든 중국산 복령(茯苓·버섯류) 24t을 유통시킨 혐의다.

검찰은 『박씨가 판매한 복령 중 일부가 M, H, S사 등 제약회사 3곳에 납품된 것으로 밝혀져 이들 제약사의 제품 100여종을 수거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농약잔류 여부에 대한 성분검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순록 뿔은 원산지인 알래스카의 이름을 따 「스카」라고 불리는데 약효가 없어 외국에서는 전혀 거래되지 않지만 국내에서는 녹용과 모양이 비슷해 한약상들 사이에서 은밀히 거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스카는 잘게 썰어놓을 경우 육안으로는 구별이 어렵고 가격도 kg당 미화 100달러(수입녹용은 kg당 미화 300달러)에 불과하다』며 『연간 국내 녹용 소비량이 200t에 이르는데 스카는 이중 10%가량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번에 적발된 불량수입한약재는 행인과 목, 오갈피 등 14종에 달했고 이뇨제와 간장약 등에 흔히 사용되는 복령의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BHC 성분이 기준치인 0.2ppm의 2배 이상인 0.4~0.7ppm이 검출됐다』고 말했다.(동아일보, 2000. 3. 27)

까지 나온 것으로 밝혀져 불법행위의 심각성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소들은 아무런 처벌이든 소지만 하면 한약을 그대로 조제해주는 업계의 관행이 불러온 희생물이란 지적도 적지 않다.

## □ 검찰수사와 업계반응

검찰의 이번 경동약령시에 대한 조사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약재 유통을 「복마전」으로 비유하는 전문가들의 시각이 하나 둘 사실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검찰의 조사를 보면 어느 특정한 품목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약재 전반에 걸쳐 적법성 여부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한약재 유통구조에 일대 변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금 조사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되고 있어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업계는 지금까지의 관행을 내세워 검찰 수사에 다소 불만을 토로하면서도 「한약재 품질 및 유통관리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선 할말을 잃고 있다.

이 제도가 수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고 있는 만큼 이렇다할 변명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업계는 이번 단속이 조속히 끝나 시장이 다시 평온해지기만을 희망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이와 함께 업계 일각에선 향후 한약 조제 및 유통 구조에 대한 명확한 법적 뒷받침과 함께 당국의 책임 있는 사후관리가 뒤따라야 이 같은 부조리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